

“차이를 존중하면, 모두가 특별해져요”

전북자치도교육청, 장애공감교육 확대

특수교육대상 학생 미술작품 전시회 등 눈길

장애공감 숲폼 챌린지 · 장애인식개선 연수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장애공감교육을 확대·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도내 학령 인구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지만 특수교육대상학생은 최근 3년간 680여명이 증가했고, 이중 74%가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만큼 일상적인 장애공감문화 정착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전북교육청은 그동안 학생·학부모·교직원 중심으로 진행되던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올해부터 일반도민까지 대상을 확대해 일상생활 속에서도 장애공감문화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함께 걷는 우리, 더 특별한 장애공감교육’을 주제로 한 특수교육대상학생 미술작품을 온(ON)통 미술관(https://www.lakaseol.com/)과 전북교육

청 창조나래 전시공간에서 만나볼 수 있다.

모두 22점의 작품에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똑같이 커다란 꿈을 꾸는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마음 속 이야기가 담겨 있다.

이와 함께 ‘장애공감 숲폼 챌린지’도 제작·공개한다. 장애공감 숲폼 챌린지에는 서거석 교육감이 직접 출연해 장애·비장애 학생들과 함께 춤을 추며 ‘차이를 존중하면 모두가 특별하다’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오는 18일에는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 장애를 갖게 된 유연수(전 제주FC 골키퍼)씨를 초청해 통합학급 교사 및 특수교사 300여 명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사 연수를 진행한다.

이어 19일에는 장애학생과 비장애학



온(ON)통 미술관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창조나래 전시공간에서 만나볼 수 있는 특수교육대상 학생 미술작품들.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생이 함께하는 통합교육 중점학교(정다운 학교)인 청명초등학교 현장 탐방을 통해 통합교육 운영 현황을 살펴볼 예정이다.

인대섭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장애 인식개선은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서로 다른 모두를 이해하고 존

중하는 문화속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모두를 위한 특수교육’을 10대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모두를 위한 장애공감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기전대, 신입생 대상 찾아가는 진로·취업상담

전주기전대학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지난 3일부터 3주간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진로·취업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개인별 맞춤 상담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1차 대면상담으로, 평소 진로와 취업분야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은 추가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상담 외에도 재학생 진로·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취업캠프, 취업박람회, 일일현장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조덕현 일자리플러스센터장은 “찾아가는 진로·취업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신입생들이 미래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대 동아리 ‘포인트’ 전국 학생 테니스 대회 우승

전주교육대학교 동아리 ‘포인트’는 최근 강원도 양구테니스파크에서 개최된 제35회 전국교육대학교 학생 테니스 대회에 출전, 남자일반부에서 우승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남자일반부 김민성(미술교육과 4년), 김도훈(실과교육과 3년)은 예선 조 1위로 통과한 후, 16강, 8강, 4강을 모두 순조롭게 치르고 결승에 올라 작년 우승팀 전주교대를 6대 2로 이겼다. 한편, 단체전 조별리그에서는 3위를 차지했다.

송지환(체육교육과) 지도교수는 “학생선수들이 공부와 운동을 함께 하는 힘든 과정에서도 꾸준한 연습과 팀워크를 위한 헌신적인 열정 덕분에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다”며 “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있을 대회에도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병준 총장은 “전국교육대학교 테니스 대회 남자일반부 우승으로 우리 대학의 위상을 드높이고, 학교에 좋은 소식을 안겨준 학생선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학교체육시설 장애인 이용 개방 지원’ 선정

우석대, 전북장애인체육회로부터 1800여만원 지원받아…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는 3년 연속 ‘학교체육시설 장애인 이용 개방지원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대한장애인체육회가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학교체육 시설의 유휴 시간대를 활용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4일 우석대학교에 따르면 그동안 체육학과 조현철 학과장과 김현륜

교수를 중심으로 장애인 500여명에 게 가상현실 스포츠와 건강재력증진 체육교실, 특수체육 특강, 장애 유형별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장애인의 생활체육 접근성 강화와 참여 기회 확대에 헌신해 왔다.

올해도 대한장애인체육회와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회로부터 사업비 1800여만 원을 지원받아 오는 12월까지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

영한다.

박노준 총장은 “대학의 공간을 ‘소유’에서 ‘공유’의 개념으로 전환하고 있는 우리 대학교는 유류 시간대에 체육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고, 체육과학대학을 중심으로 다양한 재능기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학교 감염병 예방관리 협력체계 강화

전북자치도교육청, 감염병 관리 위기소통 협의체 회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4일 창조나래 회의실에서 2024년 학교 감염병 관리 위기소통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유·초·중등학교 교장 및 담당교사, 교육지원청·도청·지역 감염병관리지원단 담당자, 감염병 전문가로 구성된 학교 감염병 관리 위기소통 협의체는 학교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북교육청의 학교

감염병 예방관리 종합대책을 공유하고, 감염병 발생 시 위기 대응을 위해 학교·교육지원청·지자체 등 각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학교 감염병 예방관리 종합대책은 평시와 국가 위기시로 나눠 △예방교육 및 모의훈련 강화 △감시 보고 및 조기 대응 △부서별 대응체계 구축 △관련기관 연계 대응 등 단계별 대응체계를 담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협의체 위원들은 전북지역 감염병 발생 현황 및 관리 방안을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학생 감염병 예방 대응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서기 문예건강과과장은 “신속한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는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 회의를 통해 학교 및 지역사회가 적극 협력해 빠르고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GTEP사업단 산업부장관상 등 수상

전북대학교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기 양성사업단(이하 GTEP사업단)이 최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GTEP 제17기 수료식 및 제18기 발대식’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등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에 따르면 먼저 이 행사에서 GTEP 사업단을 지도하고 있는 한방을 교수(무역학과)가 지역 수출 업무 지원과 수출 확대 등에 기여한 공로로 장관상을 받았다.

이어 오가연 학생(무역학과)은 노선(Notion) 업무를 통한 사업단 요원 간의 업무공유, 문서 데이터화를 통한 업무 생산성 및 창업활동 전자상거래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성과로 장관상을 받았다.

이와 함께 17기 손대비 학생(무역학과)은 GTEP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바바’의 계정관리와 다수의 박람회 등에서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한 수출 실적 성과 등으로 한국무



전북대학교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기양성사업단원이 최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GTEP 제17기 수료식 및 제18기 발대식’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등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역협회장상을 수상했다. 이 외에도 GTEP 17기 김동현, 박수민, 손대비, 송도은, 오가연, 윤승욱, 정찬양, 조은별(이상 무역학과), 윤서희(중어중문학과), 16기 임유빈, 황덕건(이상 무역학과), 15기 장예은(무역학과) 학생 12명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명의의 ‘글로벌 무역전문기 인증’을 획득했다.

김민호 사업단장은 “전북대 GTEP사

업단은 기업 수출 지원을 위해 통·번역 작업, 해외박람회 참가, 전자상거래 활동 등의 업무 노하우 및 교육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올해 18기 35명의 학생이 도내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15개월 동안 무역실무교육, 국내외 수출마케팅 활동, 전자상거래 등의 교육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한국문화 · 대학 우수성 알린다

전북대, 베트남 퀴논시와 온라인 협약 체결

국제역량 활동팀 매년 파견… 우수성 홍보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4일 온라인을 통해 베트남 퀴논시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문화와 전북대의 우수성을 베트남 학생들에게 알리고, 지속가능한 문화교류를 통해 유학생 유치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함이다.

4일 전북대에 따르면 지난해 두 차례 노원업 학생부처장을 비롯한 학생처 관계자들이 베트남 퀴논시를 방문해 문화 교류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교환했고, 실제로 올해 1월 전북대 총동아리연합회와 학생홍보대사 학생 등으로 구성된 문화 교류단이 퀴논시 현지 학생 및 시민들과 함께 하는 다채로운 문화교류 행사를 열었다.

이날 공식 협약에 따라 전북대는 기존 문화교류단에서 더욱 발전된 ‘국제

역량활동팀’을 베트남 퀴논시에 파견해 문화교류와 유학생 유치 활동 등 긴밀하게 교류하기로 했다. 또 퀴논시에 소개한 대학들과 협력의 지평도 넓혀 나가기로 했다.

김종석 학생처장은 “이번 퀴논시와의 협약은 국립대학 최초로 단체 지자체와 MOU를 체결한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며 “퀴논시와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학생들의 국제화 역량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오봉 총장은 “퀴논시와의 공식적인 협약으로 더 가까워진 것 같아 기쁘다”며 “이를 통해 전북대의 우수성을 베트남 학생들에게 알리고, 이를 유학생 유치로 연결시킨다면 우리 대학이 모색하고 있는 유학생 5천 명 유치의 큰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 역할극을 확대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학교폭력예방 연극.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학폭 예방 역할극 확대 운영

지난해 역할극 만족도 높아… 756학급으로 늘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 역할극을 확대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학교폭력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고,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교육적 효과를 고려해 올해 역할극 참여 대상을 4~5학년 756개 학급으로 확대했다. 지난해에는 5~6학년 501개 학급이 참여했다.

주인공이 남긴 SNS 상태 메시지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을 주제로 한 역할극은 학생들이 학교폭력 피·가해 학생과 방관 학생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직접 배우가 왜 역할을 바꿔 체험하면서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내용으로 전개된다.

특히 현장 교원들의 사전 시나리오 검증과 수업 시연을 마친 교사 52명이 주강사와 보조강사로 나눠 역할극을 진행한다.

역할극은 1차시 마음열기, 2차시 단

서찾기, 3차시 상황별 연극 관람, 4차시 역할 바꾸기, 5차시 예방 토론 및 소감 나누기 등 총 5차시로 진행된다.

마지막 5차시는 담임교사와의 비폭력대화 훈련, 모두의 학급 규칙 만들기 등 학급활동에 초점이 맞춰졌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501개 학급에서 진행된 역할극에 대한 담임교사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긍정적 응답 비율이 ‘강사의 수업 전문성’은 98.2%, ‘학생 공감 유도 능력’은 97.9%, ‘학교폭력 예방 효과’ 95.1% 등 반응이 좋았다고 했다.

김지유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교폭력 예방 역할극이 교실 내, 급식시간, 단복장 등 학교 내 다양한 갈등상황을 묘사하고 있어 초등학교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다”면서 “학생들이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욱 충실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진로체험 프로그램 질 높인다

전북자치도교육청, 오늘까지 ‘꿈길’ 연수 진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4~5일 이틀 간 전주교육지원청에서 14개 시군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와 초·중등 학교지원단을 대상으로 ‘꿈길’로 진로체험지원전산망 ‘꿈길’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꿈길’을 활용한 진로 체험활동이 초등학교까지 확대됨에 따라 시스템을 활용한 진로체험과, 체험 후 활동 결과를 입력하는 관리체계 안내에 중점을 뒀다.

먼저 4일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송승훈 책임연구원과 김보미 연구원이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기

능 개선 내용과 진로체험 관리체계를 중심으로 강의를 펼쳤다.

이어 5일에는 남성고등학교 이주미 교사가 학교지원단을 대상으로 ‘꿈길’ 운영을 통한 단위학교의 진로체험 관리 방법 안내할 예정이다.

유효선 중등교육과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꿈길’ 프로그램 관리 체계를 익히고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 초등학교를 포함한 모든 단위학교의 진로체험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진로교육을 더욱 내실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